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몇 달 전 출근길에 태산목(泰山木)이라는 나무를 처음 만났다. 일 년 내내 잎을 볼 수 있는 상록수인데 내가 만난 녀석은 광주 동운초등학교 교정에서 우람한 풍채를 자랑하고 있었다.

아파트 3층 정도 높이에 초록색 이파리와 황금색 이파리가 섞여 있어 무슨 나무일까 궁금했다. 일부러 교정에 들어가 보니 다행히 가지에 이름표가 달려 있다. 나무의 키가 태산처럼 높아서 이름도 태산목인 것일까.

태산목의 진면목을 본 것은 한참 지나서다. 며칠 전 저녁 산책길. 광주비엔날레 공원을 한 바퀴 돌다 진한 향기에 이끌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나무 위에 하얀 달덩이가 있었다. 아, 이게 뭐지? 목련인가 했더니 아니다. 연꽃처럼 생겼지만 꽃송이가 목련보다는 두 배 정도나 더 크다. 넓적한 푸른 잎 사이에 달항아리처럼 솟아오른 꽃송이. 보기에 참 좋더라.

집에 와서 찾아보니 태산목은 목련과 한집안어란다. 그랬구나. 꽃과 잎이 크고 키도 커가히 위엄이 넘친다. 꽃말이 왜 '위엄'인 줄 이제야 알겠다. 순백의 꽃이 하늘을 향해 활짝 피어난 모습. 어떤 시인은 그 커다란 꽃송이를 보고 깨끗한 백자 사발이 나무 위에 놓인 것 같다고 했는지.

을 봄엔 광주천변 산책길을 걷다가 봄꽃지(일명 큰개불알꽃)를 만나기도 했다. 곁의

누군가가 이 꽃을 가리켜 큰개불알꽃이라 하자,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망측해 하기도 했다는 그 꽃.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까치처럼 봄소식을 맨 먼저 알려주는 봄까치꽃은 새끼손톱만 한 연보랏빛의 아주 작은 꽃이다. 초록 들녘에 약간의 형광빛을 내어 별처럼 빛나는데 언뜻 보면 코끼리 형상의 달개비꽃과 헛갈릴 수도 있었다.

이오덕·김동리 선생의 호통

아직 '꽃미남'(꽃에 미친 남자) 수준까지는 못 되지만, 올 봄부터 꽃에 빠져 살기 시작했다. 무심코 보아 넘기던 이름 모를 꽃들. 그 꽃들의 이름을 알아가는 재미가 참으로 쏠쏠하다. 사실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에 '이름 모를 꽃'이 어디 있겠나.

아동문학가 이오덕 선생은 '우리말 살려 쓰기'(아리랑나라)란 책에 이런 말을 남겼다. "시인이고 수필가이고 소설가란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기껏해야 '들애 나가면 이름 모를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산에 가면 이름 모를 산새가 울어대고' 따위로 쓸 줄밖에 모릅니다. 세상에 제 땅에 피고 지는 꽃 이름도 모르고, 우는 새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합니까?" 김동리 선생이 소설가 문순태의 소설 습작

봄날은 가는데 꽃은 지고 또 피고

을 읽다가 호통을 쳤다는 일화도 전설처럼 전해진다. '들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는 대목에서 원고를 집어던졌다는 것이다. "이름 모를 꽃이 어디 있어! 내가 모른다고 이름 모를 꽃이냐!"

우리말사전과 식물도감을 손수 만들기도 했던 소설가 김정한 선생도 생전에 제자를 꾸짖으며 같은 말을 남겼다.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이 어딤. 시인이려면 날날이 찾아서 물어 주어야지."

안도현 시인은 서른다섯이 되도록 '애기똥풀꽃'도 모르고 시를 썼다는 게 부끄러웠다고 고백한 일이 있다. 그리고 보니 지난달인가, 순천의 한 농원에서 무리 지어 노랑게 피어 있는 그 앙증맞은 꽃을 보았던 일이 생각난다. 꽃 색깔도 맑고 고운 노랑이지만 줄기를 쥐어 보면 노란 액체가 나오는 것이 마냥 신기했다. 그게 건강한 아기의 똥 색깔과 같다 하여 애기똥풀꽃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던가.

호랑기사나무 꽃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는지? 언젠가 양림동 서양 선교사 사택 부근에 있는 400년 된 호랑기사나무 언덕을 찾았을 때만 해도, 이런 나무가 꽃을 피워 올리리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가족 집값의 이파리 속에 호랑이 발톱 같은 뾰족한 톱니를 감추고 있는 이 나무가, 잠깐이긴 하지만 하얀 꽃을 피우고 또한 그렇게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는 사실을, 올 봄 어느 날 비엔날레 정원을 거닐며 처음 알았다.

봄날은 가는데, 봄날은 갔는데, 여름의 길목에서도 많은 꽃들이 지고 또 피고 있다. 옛그제 들른 산수동 어느 카페에서는 빨간 석류꽃이 활짝 피어나 요염하고도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불로초교 앞에 하얀 점시꽃도 활짝 피어났다.

어제는 잠시 짬을 내어 회사 옥상에 올랐더니 새끼손톱보다 작은 꿩이밥 노란 꽃들이 울망출망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허리를 굽혀야 겨우 보이는 작은 꽃인데 이파리는 완전한 하트 모양을 하고 있다.(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초'로 오인하기도 한다)

제 땅의 꽃 이름도 몰라서야

꿩이밥 꽃은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꽃잎을 활짝 열지 않는다. 그런 날에는 애써 꽃잎을 피워 봐야 벌·나비가 저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몸집은 작아도 참으로 현명한 친구들이다.

시립민속박물관 연못 근처에 있는 몇 그루의 자귀나무 또한 요즈음 한창 꽃망울을 터뜨리며 그 화려한 모습을 자랑한다. 수십 개의 작은 꽃이 우산 모양으로 달렸는데 비단실처럼 기다란 분홍빛 수술이 늘어져 바람에 하늘거린다. 아름답다.

이처럼 화사한 꽃을 피우는 자귀나무(silk tree)는 향기도 좋은데, 흔히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합환목(合歡木), 합혼수(合婚樹) 또는 야합수(夜合樹)로 불리기도 한다. 아까시나무처럼 하나의 줄기에 양쪽으로 마주 난 잎들이, 밤이 되면 살포시 서로 몸을 포개기 때문이다. 낮에는 잎을 수평으로 퍼서 빛을 최대한 받다가 밤에는 잎을 마주 접는 식물의 수면운동일 뿐일 터인데, 사람들이 제멋대로 상상하고서는 '자는 시간을 귀신 같이 안다'며 '자귀'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인 것이리라.

김춘수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했다. 메르스기 기승을 부리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유리(離離)시키는 요즈음,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잠초들마저도 제 이름을 불러주니 나에게로 다가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고 있음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자고로 꽃 좋아하는 이치고 나쁜 사람 없다 했으니.

(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순천의 '모야모' 덕분이라 하겠다. '모야모'는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어 올리면 식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이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아 깔면 된다.)

전남 메르스 감시대상 첫 감소

격리해제 142명·자택격리 207명으로 하루새 -10명

보성 확진환자 접촉 181명 음성...道, 생계비 지원 상담

전남지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자택 격리 대상자 중 잠복기(14일)가 지나 격리가 해제된 주민이 142명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대구 공무원이 지난 달 31일 찾아 머문 선암사의 매표소 직원과 주차요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매일 2차례 발열 여부를 점검하는 능동감시 대상에 추가했다.

모두 250여명이 선암사를 관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접촉 가능성이 예상되는 7명(주차장 관리자 3명, 매표소 근무자 4명)에 대해 체온 측정, 메르스 증상 관련 상담을 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선암사 방문 당시 관광해설을 요청하지 않았고, 선암사 스님들과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시는 대구의 메르스 확진환자 A(52)씨가 지난 달 31일 선암사를 방문해 2시간 30여분 머물렀던 이동경로 등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일 A씨는 대구 새마을금고 회원 700여명과 함께 17대의 차량으로 11시 30분께 선암사 주차장에 도착해 대구에서 냉동참차로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으며, 차량 1대에 1명씩 17명이 매표를 하고

전남도는 17일을 기점으로 지역 내 메르스 확산 기세가 한 풀 꺾인 것 아닌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보성 확

진환자 A(64)씨가 원치 여부 1차 검사에서, 광양 의심환자 50대 여성 역시 1·2차 검사에서 각각 음성으로 판정되고 갈수록 증가하던 자택격리, 능동감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남도 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접촉자 28명, 보성 확진환자 접촉자 52명, 중재가 있는 주민 102명 등 모두 182명에 대해 메르스 검사를 실시했으나 A씨를 제외한 181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와 함께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225건 가운데 63건에 대해 3231만 원을 지원하고, 172건에 대해서는 상담을 진행 중이다.

도는 메르스 확진환자와 격리자, 휴업병원 등 직·간접 피해자를 위해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기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납기 연장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시·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지방세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0@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대란 오나

교육부, 예산 신청 안해...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 입장 고수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흥근 의원은 18일 교육부의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가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현행 법령상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5.27%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광주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 정부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전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공약 이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공약 파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할 것을 재촉한다"고 18일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과 교육재정확대, 국가책임 무상교육 완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음에도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철도시설공단이 광주송정역사 규모 축소' 관련 반론 보도

광주일보의 지난 4월 29일과 30일 기사를 통해, '철도시설공단은 애초 송정역의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넓게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2011년도에 이사장이 축소 설계를 지시하면서 현재와 같이 협소한 역사가 되었다'는 광주광역시 관계자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 측은 "역사 규모는 여객수송 수요 등에 관한 객관적 데이터와 자료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외부기관의 용역보고서에 근거해 정해진 것이고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광주송정역사가 축소된 것이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本社人事

▲최재호:논설위원 (6월 19일자)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처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속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